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한솔텔레콤

인터넷폰 사업 본격 추진

한솔텔레콤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인터넷폰 사업 추진단을 공식 발족시켰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한솔텔레콤은 오는 10월중에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미국, 일본 등의 주요도시에 인터넷폰 게이트웨이를 설치, 국내는 물론 해외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오는 99년에는 해외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세계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솔텔레콤은 최근 캐나다 비엔나시스템사의 인터넷폰 게이트웨이를 서비스 장비로 선정

해 발주계약을 체결했다. 또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까지 인터넷폰 별정통신사업자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AT&T와 T2(6Mbps) 회선을 연결했고 오는 10월까지 10Mbps로 회선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한솔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PC대 PC와 PC대 전화는 물론, 전화 대 전화 방식까지 지원하며 전화를 통해 바로 상대방의 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대 전화 방식의 인터넷폰 서비스에 주력할 방침이다.

LG-EDS시스템

철도청 통합시설관리시스템 수주

LG-EDS시스템이 철도청의 통합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DB입력자료 표준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LG-EDS시스템은 지난 7월 11일 실시된 입찰에서 현대정보기술, 한진정보통신, 한국항공 컨소시엄, 대우정보시스템, 유신코퍼레이션, 효성데이터시스템등 경쟁업체를 제치고 사업권을 수주했다. 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은 철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로, 터널, 교량 등 건축물, 역사, 청사등 건축물, 통신 시설물, 송변전관리시스템, 신호운영 및 각종 시설물 등 5개 부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규모가 2백50억 원대에 이른다.

LG-EDS시스템은 이번 수주에 따라 올연말까지 전국의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물류정보통신

항만운영정보 EDI서비스 체계로 전환 항만정보시스템의 근간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전자문서교환(E야) 서비스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물류EDI서비스업체인 한국물류정보통신은 최근 (재단법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와 위험물검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위험물 검사업무 EDI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ORT-MIS서비스는 지난해 개발된 선박입출항, 예도선 도착신고, 컨테이너 반입반출신고, 화물반출입신고 등 24개분야의 전자문서외에 「위험물검사업무」등 전자문서가 새로 개발, 운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위험물 검사소의 검사증 발급이 한층 손쉬워지며 PORT-MIS와 연계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물하역허가처리 등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

10월부터 웹 EDI 상용서비스

데이콤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웹EDI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난 7월 9일 데이콤은 국내 기업들의 인터넷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매직링크 EDI서비스」를 일반전화망은 물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매직링크 웹 EDI」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이를 위해 컨트롤데이타코리아(CDK)와 웹 EDI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CDK의 웹 EDI용 서버인 「트레이딩 포스트(Trading Post)」를 매직링크 서버와 연동해 인터넷상의 웹EDI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표준문서개발과 시스템 및 SW간의 비호환성 등

으로 인해 EDI시스템 구축과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EDI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기업들도 이를 이용해 인트라넷 또는 통합정보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EDI가 본격화할 경우 유통분야를 비롯해 운송, 제조, 금융분야의 EDI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SW구입이나 부가가치통신망(VAN) 이용요금 등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전자문서교환을 위한 DB 작성이나 보관 등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이 불필요하다.

「매직링크 웹 EDI」는 가입자 고유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며 이용자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문서를 입력, 발송하거나 수신된 문서를 확인,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가입지점당 기본요금이 월 3만원이며,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월 5천원에 인터넷PPP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삼성SDS

AT&T온라인 서비스 개시

삼성SDS가 인터넷서비스인 AT&T월드넷을 비롯한 AT&T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AT&T온라인 서비스는 기관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선서비스 외에 개인서비스, 웹호스팅, 인터넷 컨설팅 등 다양한 인터넷 서

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미국 월드넷과 T1(1.544Mbps)급 1회선을 개통했으며 올해안에 T2(6Mbps)급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가입자 유치를 위해 33.6Kbps 2백포트를 확보했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트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비 1만원에 월 1만8천원의 이용요금이 삼성SDS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유니텔 인터넷서비스를 초/중급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범국민적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AT&T인터넷서비스는 비즈니스맨과 기업, 주한외국인 등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기아정보시스템

대검찰청 이미지정보시스템 구축

기아정보시스템은 대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미지정보시스템」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구축할 「이미지정보시스템」은 각종 강력사건 피의자의 사진, 지문 등 영상 자료에 판결문 등 문서를 통합,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국에 산재된 지검 및 지청에서 동시에 조회 및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아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의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어 검색시스템, 자동 색인시스템

및 문서등록 기능, 문장 구조분석과 패턴 인식기법, 고성능 검색엔진 등 다양한 기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사지휘 체계의 과학화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수배하는 등 국가간 사법공조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다. 또 전국 검찰청에서 판결문의 온라인 등본 발급도 가능해진다.

검찰은 향후 이 시스템을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조직폭력사범 및 마약사범 이외의 모든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상정보 및 관련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韓-美간 T3회선 서비스 본격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 미간 T3(45Mbps) 인터넷 국제회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한국통신은 미국 AT&T와 T3(45Mbps)로 연결한 인터넷 국제회선의 시험운용을 마치고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모두 62Mbps의 인터넷 국제회선을 보유하게 됐으며 국내 ISP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국제회선을 제공하는 NSP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또 서울에만 설치돼 있는 인터넷교환센터(KIX)의 접

속점을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등으로 확대해 소규모 지방 ISP들도 1백55Mbps 고속 노드를 활용해 국제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은 지난 7월 15일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넷 국제회선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

브라질 이동전화 입찰

자격 회복

브라질 이동전화 사업권 입찰경쟁에서 사업계획서에 회사명을 잘못 기입해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몰렸던 SK텔레콤이 입찰자격을 회복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브라질법원은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는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수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시점까지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에 대한 브라질 통신부의 탈락결정을 중지하고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브라질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신부가 지적한 오류는 더 세심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사업자 선정시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형식에 치우친 입찰서류 평가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기술요건이 무시돼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

혔다.

이번 브라질 법원의 판결은 사업계획서상에 회사명을 「Korea Mobile Telecom Corp.」와 「Korea Mobile Telecom Inc.」등 2가지로 중복표기했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박탈한 브라질 통신부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브라질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허가하는 이동전화 사업자 입찰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알가/라이텔 컨소시엄은 시에라주를 중심으로 하는 북동부 지역 등 총 4개 지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현대정보기술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공급

현대정보기술은 최근 데이터마트 분야 전문업체인 미 아머 소프트웨어사와 협력계약을 체결, 이 회사의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인 「에스페이스 서버」를 국내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정보기술은 아머사 제품의 국내 공급을 위해 펜터컴퓨터, 텍스캔, 칼스 알앤시 등 업체와 VAR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가 공급하기로한 「에스페이스」는 클라이언트 서버 및 인터넷 환경을 지원하는 OLAP(온라인 분석처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으로 최종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

접 접근해 창조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비정형 문서를 산출할 수 있다.

현대정보기술은 앞으로 아버사와 협력, 국내 데이터마트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SW 창업보육센터 확대

정보통신부는 SW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지역 SW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SW창업보육실을 우체국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 중으로 전국 체신청 단위로 우체국 1군대를 선정, SW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체국의 SW창업보육실은 지역 SW센터의 창업보육실과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을 제공받게 된다.

대우정보시스템

전자 카탈로그 제작도구 공급

대우정보시스템은 호주 민컴사와 제휴, 이 회사의 전자 카탈로그 제작도구인 「링크 윈」을 국내 공급한다.

대우가 공급키로한 「링크 윈」은 CALS 표준을 채용, 기차, 항공기,

자동차, 공장설비 등 기계 장치와 각종 부품의 전자 카탈로그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도구다.

「링크 윈」은 디지털 문서로 제작돼 수정이 쉽고 제작 및 배포도 CD나 디스켓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여러개의 부품을 가진 제품일 경우 작은 부품을 확대하거나 저장된 설명을 읽을 수 있다.

두산정보통신

키드 인터피아 서비스 개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인터넷서비스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두산정보통신은 지난 7월 10일부터 불건전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 인터넷 서비스인 「키드 인터피아(<http://kidkid.net>)」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리 약 6만건의 음란물 사이트와 뉴스그룹 주소를 등록, 이들 사이트의 접속을 원천 봉쇄해준다. 이를 위해 두산은 미국 시큐어컴퓨팅(SCC)사의 필터링DB인 「스마트 필터」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돕기 위해 전자우편과 개인홈페이지 서비스 외에 영어공부방, 과학교실, 키드갤러리, 키드

문학관, 어린이백화점 등 약 1백여개의 초등학교용 콘텐츠를 구축해 제공하기로 했다.

두산정보통신은 8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키드 인터피아의 상용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는 한편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 이 서비스를 청소년 전용 인터넷서비스로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월 1만2천1백원(부가세 포함)의 정액제이며 학부모들의 인터넷 지도를 돕기 위해 가족 ID도 발급할 예정이다.

포스데이타

한국철강 통합정보시스템 수주

포스데이타는 최근 한국철강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BPR을 통해 한국철강의 현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철강의 정보화 프로젝트는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인데 우선 1단계로 마산 및 창원공장의 생산관리 및 지원시스템(수주, 생산, 출하, 판매, 구매, 인사, 재고관리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내년 4월까지 구축 완료되면 한국철강은 사무생산성 향상, 재고 비용 감축, 고객만족 극대화, 신규이익 창출기회 확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